

광주 서구 미래 성장 위해 국회-서구청 '원팀' 본격

조인철 의원·김이강 청장, 현안·예산 대응 협력
광주도심융합특구·AI라운지 등 현안 중점 점검

광주 서구의 미래 성장 기반 등을 위해 국회-서구청 간 '원팀'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갑)에 따르면 전남 서구청에서 김이강 광주시 서구청장과 '서구 주요 현안 및 예산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단순한 사업별 예산 점검을 넘어, 서구 핵심 현안을 국회와 서구청이 함께 공유하고 정부 예산 편성 단계부터 필요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상시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서구 발전과 주민 체감형 예산 확보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조 의원과 김 청장은 서구의

미래 성장 기반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 분야는 ▲광주 도심융합특구 조성 ▲AI 라운지 거점 운영 ▲광주-나주 광역철도·광천상무선 건설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발산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 ▲농성지구(서석고 일원) 재해예방 사업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 서구의 주요 현안사업이다. 국비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부처 협의 전략도 함께 점검했다. 조인철 의원은 "서구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 국회와 구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서구청과 '원팀'이 돼 정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왼쪽)과 김이강 광주시 서구청장이 지난 6일 '서구 주요 현안 및 예산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서구 제공>

김이강 청장은 "서구의 주요 현안은 주민 생 보다 중요하다"며 "의원실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통해 현안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고, 주민 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정진욱, '아스팔트' 상생협약 체결 이끌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갑)이 7일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아스팔트 가격 폭등과 수급 불안 속에서 정유업계-아스콘업계·정부 간 상생협약 체결을 성사시켜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생협약식을 통해 4대 정유사(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S-OIL)로부터 4월 인상분 적극 인하 및 향후 인상 요인 발생 시 인상 폭 최소화라는 전향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김남근 민생부대표, 정진욱·이재관·염태영·정준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이 함께했다.

또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전선건설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와 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S-OIL 등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상생협약 체결에 동참했다. 이번 협약에는 ▲정유사의 4월 아스팔트 가격 인상분 적극 인하 및 향후 인상 최소화 ▲매월 초 대리점에 공급가격 공문 통보를 통한 가격 투명성 제고 ▲조달청의 원자재 가격 상승분 신속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 ▲산업부의 국내 공급 우선 및 수급 안정화 조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 부처의 시장 감시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담겼다. /김진수 기자

진보 이종욱 "돌봄 국가 책임제 호남서 선도"

어르신 행복 날개 10대 프로젝트 발표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7일 가족 간병 법정 최저임금 보장제와 효도수당 지급, 119 효도 닥터 도입 등을 담은 '어르신 행복 날개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 국가 책임제를 호남에서 선도하겠다"며 "자녀의 짐은 덜고 어르신의 품

격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제 안심 분야 공약으로 가족 간병 '법정 최저임금 보장제'를 제시했다. 가족이 직접 간병할 경우 2026년 기준 월 약 25만 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의 50-100%를 특별시가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또 "7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실동거 자녀에게 월 30만원의 '효도 수당'을 신설해 효도가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안심' 분야에서는 비상시 24시간 '찾아가는 119 효도 닥터'와 65세 이상 누구나 '전담 마을 주치의', 방문 약사를 통한 '복약 안심 서비스'를 공약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지하철과 버스, 마을택시, 섬마을 여객선까지 포함한 '어르신 대중교통 완전 프리패스'와 연 4회 '남도 한바퀴' 여행권, 월 1회 영화·문화공연 무상 관람 지원 등 이동·문화 공약도 제시했다. /변은진 기자

박만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민주당 비례대표 광역의원 출마

박만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한다. 박만 위원장은 7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이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서 한국노동총의 추천으로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게 됐다"면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출마표를 던졌다. 박 위원장은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취지에 맞게 지역 소멸 방지와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 싶다"면서 "금융권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일자리 지킴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헌·당규에 따른 검증 절차를 거쳐 후보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임재만 기자

국힘 안태욱,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출마 선언

"민주 일당독점 견제할 제1야당 필요"
국민의힘 안태욱 전 광주시장 위원장이 7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전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용과 합리, 부강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안 전 위원장은 "광주·전남이 통합됐다고 끝이 아니다"며 "주정사 문제를 비롯해 행정의 인력·조직·시스템 정비, 예산 확보와 배분·감독까지 시민을 위한 막중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7년 직선제 이후 광주·전남은

일당 독재로 현재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까지 사실상 민주당이 지역사회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다"며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정치 형태 때문에 독선과 반칙, 특권, 이권 카르텔, 폼수와 구태정치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 혁신 공약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각종 특권 포기, 국회의원 세비 60% 반납, 시민소환제 실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광주 발전 3대 공약으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관광산업 육성,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내걸었다. 안 전 위원장은 "AI 기반 미래산업 집적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비롯해 아트벨

리 기반 문화관광특구 지정, 하남산단 기반시설 정비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전 위원장은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일당독점의 횡포와 폐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전 토박이', 제1야당 국회의원 한 사람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지를 호소했다. /변은진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